

광주 초중고 담임 60%가 기간제...담임 기피 심화

전남 44%...대전 72% 가장 높아 전국 60%...10년새 6.7% 증가

광주지역 공립 초·중·고교 기간제교원 10명 중 6명이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은 10명 중 4명으로 타지역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 지역별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담임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2022년 60.2%로 10년 사이 6.7%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3년 기간제교원 586명 중 269명(45.9%)이 담임업무를 맡았지만 2021년 686명 중 396명으로 57.7%, 2022년 694명 중 402명으로 57.9%로 늘었다.

전남은 2013년 831명 중 200명(24.1%)에서 2021년 1169명 중 458명(39.2%), 2022년 1327명 중 587명(44.2%)이다.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교원은 2013년 2만 4970명에서 2019년 2만 5368명, 2020년 2만 6187명, 2021년 2만 8269명, 지난해 3만 3409명으로 늘었으며 담임 비율도 2014년 52.8%, 2016년 53.4%, 2018년 55.6%, 2020년 59.4%, 2022년 60.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담임 교사 기

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꼴로 담임 업무를 떠맡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대전 지역 기간제교원 중 72.1%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북 70.2%, 강원 66.8% 순이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교사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임교사 업무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행정업무의 경감과 교육활동 보호 등의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학생 교육비 최대 투자 거점국립대·비수도권 대학 1위

전남대학교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수들은 연구비 확보에 있어서 단연 도드라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정보공시 공식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2023년 기준 발표에 따르면, 전남대는 학생 1인당 연평균 2400여 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국 거점국립대는 물론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서 가장 많은 교육비에 해당한다.

전남대는 또, 전임교원 1인당 평균 연구비 확보에서도 1억7335만여원으로, 거점국립대를 비롯해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체 대학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전남대가 정부재정지원사업 확보 비수도권 대학 1위를 달성하면서 얻은 수혜금 약 5천억 원을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꾸준히 면서도 효율적으로 투자해 왔다는 방증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성택 총장은 "글로벌대학30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혁신 인재양성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와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16~17일 예비고1 진로진학설명회 EBS 대표강사 학습법 전수 2027학년도 대입정보 제공

전남도교육청은 EBS와 함께 오는 16일 전남여성가족센터(서부권), 17일 여수디오션리조트(동부권)에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8 대입제도 개편'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입을 앞둔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특히 설명회에선 EBS 대표 강사들이 직접 효과적인 학습법을 전수하고, 2027학년도 대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대를 모은다.

EBS 수석 영역 대표강사 정유빈 씨는 수학 과목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수학 자기 주도 학습법을 안내하고, 한양대 사대부고 윤윤규 교사와 송의여고 정재원 교사가 2027학년도 대입의 이해 및 성공전략을 강의한다.

설명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포털을 통해 선착순(서부권 200명, 동부권 150명)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는 정보 소외지역인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수시 대비 면접 지도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찾아가는 꿈대로 이동 진학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은섭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중학생들에게 맞춤형 대입 정보와 학습법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들의 성공적인 진학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송원대, '세계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유아교육과 '아이 좋아 팀' 1위

송원대학교(총장 최수태) 혁신사업단(단장 김호연)은 최근 '2023 대학 간 공유·협력 세계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를 열었다. <사진> 송원대학교 참가자 5팀, 연합 2팀 등 모두 7팀이 성과를 발표했다. 송원대, 호남대, 남부대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세계 시민성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이다. 평가 결과 1위는 송원대 유아교육과 '아이 좋아 팀'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알아보고 배워보는 다양한 유아교육'을 주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위는 송원대 건축학과 2명, 간호학과 2명으로 이루어진 '사자의 도시' 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싱가포르의 친환경적 생활 탐방'을 주제로 참여해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갖춘 건물들, 친환경 에너지 사용법, 비건 음식점 등에 주목했다. 두 팀은

지난 5일 송원대, 호남대, 남부대가 진행하는 성과 공유회에서 송원대를 대표해 발표했다.

송원대학교 대학혁신사업단 김호연 단장은 "대학간 교류협력과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세계 시민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외에서 보람있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도전정신 및 글로벌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국립 순천대 연구진, '에코자원 생태가든 사례실증' 연구 눈길

공주대·군산대와 협력 지역 현안 '공공자원화시설 학술연구'

국립 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연구진이 (재)순천대학교발전지원단의 학술연구지원 기금으로 '에코자원 생태가든 사례실증' 연구를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공공자원화시설'과 관련 친환경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라는 지역사회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복합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순천대와 공주대, 군산대 교수 등 7명의 연구팀이 수행했다.

연구팀은 국내·외 연구 및 실증사례와 여론동향 데이터를 분석하고 7만 건 이상의 지역 여론동향 자료를 수집한 결과, 환경기초시설과 생활폐기물 시설이라는 키워드가 '경제·사회' 카테고리 연관

어이면서 고려사안으로 '지역·습자·가족'과도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설 지하화·지상 공원화에 기반한 국내외 친환경 시설 건축사례를 바탕으로 설치 인접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폐열 에너지를 활용한 에코 온실, 물놀이시설, 복합소풍물 등을 조성하는 '생태·문화 복합공간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과 '생태관광 및 지역민 편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에코자원 생태가든 사례실증' 연구는 정책 고려 요인 연구를 위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시설계획단계-시설시행단계-시설운영및관리단계'로 구분하여 AHP(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분석도 실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공해 및 사고발생가능성 최소화, 시설 운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순으로 중요도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신뢰성 있는 정책집행을 위해 ▲민관협의체 운영 ▲주민지원협의체 ▲주민감시요원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 결과 정보공개 등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순천대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도시 존속에 필수불가결하지만 통상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공공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모범 설치 사례로 평가받는 국내외 시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여러 데이터에 기반해 생태 수도 순천시에 가장 적합한 자원화시설을 고안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세계대학평가 국내 28위·호남 사립대 1위

조선대가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28위, 호남지역 사립대 중 1위를 차지했다.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최근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2024 THE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세계 1201~1500위에 진입, 국내 39개 대학 중 2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호남지역에서는 사립대 중 1위다.

2024 THE 세계대학평가 평가영역은 ▲교육여건(29.5%) ▲연구환경(29%) ▲연구의 질(30%) ▲산학협력(4%) ▲국제화(7.5%) 등이다.

조선대는 이중 산학협력 분야에서 71.9점을 기록, 다섯 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한편 THE는 1971년 설립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대학평가기관으로 2004년부터 세계 대학 순위, 소규모 대학 순위, 아시아 대학 순위 등 다양한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순위에는 전 세계 108개국 1904개 대학이 포함됐다. 국내 대학은 39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향매산 전망대 | 안성 죽산한미당 | 부여사비 장작지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